

## 2017년 12월 3일 "(강림절) 참된 사람을 원하는 갈망"(딤후 2:4-7)

### <도입>

교회력으로 성탄절 전 네 번의 주일은 대강절로 지킵니다(주님의 강림을 대망한다는 뜻). 앞으로 네 번에 걸쳐 예수님의 강림(세상에 오심)을 대망해야 할 이유에 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본질적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본연의 갈망을 채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가는 개인적/사회적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예: 물질을 갈망하면 모든 성향과 방향이 물질중심으로 형성되고, 물질을 최고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이런 표면적 갈망에 감추어진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발견하게 도우시고, 그 갈망을 올려드리도록 도전하십니다.

### [1] 갈망의 성취를 구하는 과정 - 지식

사람에게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안정감과 해방감을 얻습니다. 몸이 아플 때 어찌 해야 할지 모르면 불안해지고 억눌립니다. 그런데 이 때 레몬 생각차를 마시면 낫는다는 지식을 얻으면 호기심 해소와 함께 대처 능력도 길러집니다. 지식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까?

- (1) **직관:** 딱 보고 터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직관으로 터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이성:**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는 통로. 교육은 주로 이성의 수준을 함양시킵니다.
- (3) **경험:** 연륜을 통해 삶의 방식과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을 통해 얻는 지식은 때로는 자기애적 도취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지식이 구비되려면 아직 언급하지 않은 네 번째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 (4) **계시:** (국어사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함' 계시는 계시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듣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지식을 환상, 입신, 최면을 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계룡산 수준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뜻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딤후 3:16). '감동'은 도취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태도와 삶을 붙들어 주신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글들을 인간이 얻는 큰 구원의 지식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라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계시의 책**으로 받고, 읽고 묵상할 때, 직관, 이성, 경험이 활용됩니다. 이로써 참된 지식을 쌓아가면, 결국 깊은 곳의 본연의 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 [2] 깊은 갈망 - 무엇을 위한?

그 갈망 중 하나는 참된 온전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나의 조건에 상관없이 은혜 얻기를 갈망합니다. 셋째, 사람에게겐 평화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려고 싶은 갈망이 있고, 넷째, 사람은 죽고 싶다고 해도 참된 삶을 살고픈 진정한 힘을 갈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갈망을 살피겠습니다.

어릴 적 어느 시기에 우리는 나의 부모가 가장 훌륭한 참된 온전한 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또, 결혼 할 때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이 사람만큼은 내게 참되고 온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들어갔을 때 보스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교회 왔을 때, 만나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번번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내가 참된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조차도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갈망이 사라질까요?

그 갈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식을 기를 때 1000 번을 힘들게 해도 1001 번째 부모의 깊은 곳에는 내 아이가 참된 온전한 사람이길 갈망합니다. 더 나가서 자식 뿐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가 참된 온전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 갈망이 채워지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것을 채워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참된 온전한 분이십니다. **5 절.** "...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The man Jesus)" 이분을 만나면 내 안에 참 사람을 찾고 있는 갈망이 채워집니다. 참된 온전한 인간의 귀감을 본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참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분입니다(6 절). '나'를 위해 대속의 희생의 사랑을 실현하신 것이 직관적, 이성적,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의 계시의 빛 아래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람을 원하는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참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성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히 11 장). 이들은 인간적,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참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 기준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단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고와 싸우고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갈망은 인간이 가진 그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 가까이서부터 참된 사람을 찾는 갈망입니다. 참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 충족한 사람은 이 갈망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알 것입니다. 참된 사람을 원하는 갈망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 <나눔의 질문>

1.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상황과 경우에 가장 즐겁습니까? 어떤 것이든 한 가지씩 나누며 자유롭게 이야기 해봅시다.
2. 내 안에 참된 사람을 찾고 보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선 피조계를 다스리시며 참된 온전한 사람을(엡 1:4; 마 5:348) 찾고 싶어하시는 소원을 갖고 계심을 아셨습니까?
3. 내가 만난 참된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간적 기준에서 만난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기준에서 만난 사람이 있나 찾아 보십시오.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까?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또한 왜 그럴까요?
4.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